[2023 국가암등록통계]
신규 암환자, 고령층에 집중!

- 한국인의 암 발생·유병 등 전반적 암 발생 실태를 '2023 국가암등록통계'(보건복지부)를 통해 살펴본다.
- 2023년 암유병자는 약 273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3%에 해당됐다. (이를 만 18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여성(56%)이 남성(44%)보다 암유병자 비중이 높았다.
- 한편 2023년 신규 암환자(28.9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4.5만 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신규 암 발생이 고령층에 집중되어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암 발생·유병 관련 현황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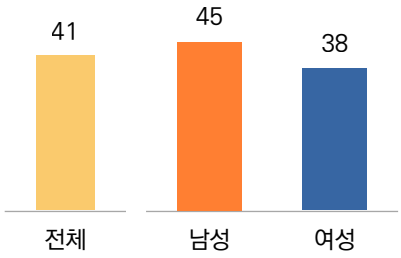
- 전체 암유병자* : 약 273만 명 (전체인구 대비 5.3%,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6.1%)
  - 암유병자 성별 비중: 여성 56% 〉 남성 44%
- 신규 암환자(28.9만 명)의 절반(50%): 65세 이상 고령자(14.5만 명)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2026.01.21.
*암유병자: 1999년부터 2023년 사이 암확진을 받아 2024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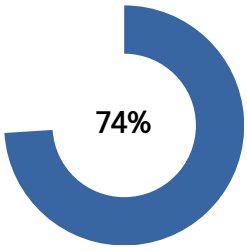
평생 동안 암 발생할 확률, 41%!

- 우리 국민이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은 41%로, 남성은 절반 가까이(45%), 여성은 5명 중 2명(38%)으로 추정됐다.
- 한편,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4%로, 암환자 4명 중 3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평생 암 발생 확률** (2023, %)



[그림]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2019~2023)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2026.01.21.
*2023년 주민등록통계의 성별 인구 수를 가중치로 둔 가중평균을 산출함
**현재의 암 발생률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평생 암이 발생할 확률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전체 암 1위, '갑상선암'!

- 2023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12.3%)이었고, 이어 '폐암'(11.4%), '대장암'(11.3%) 순이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립선암(15.0%), 여성은 유방암(21.6%)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암 발생 순위 (2023)

		1위	2위	3위
전체		갑상선암(12.3%)	폐암(11.4%)	대장암(11.3%)
성별	남성	전립선암(15.0%)	폐암(14.5%)	위암(12.8%)
	여성	유방암(21.6%)	갑상선암(19.0%)	대장암(9.8%)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2026.01.21.

40대 이하는 '갑상선암', 60대 이상은 '폐암'이 가장 많아!

- 남녀 전체에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10~40대까지는 갑상선암, 50대는 유방암, 60~70대와 80세 이상에서는 폐암이었다.

[표] 연령대별 가장 많이 발생한 암

		전체 기준(1위)	남성(1위)	여성(1위)
전체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연령별	10대	갑상선암	백혈병	갑상선암
	20대	갑상선암	갑상선암	갑상선암
	30대	갑상선암	갑상선암	갑상선암
	40대	갑상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50대	유방암	대장암	유방암
	60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70대	폐암	전립선암	폐암
	80세 이상	폐암	폐암	대장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2026.01.21.